

하이폴리머 도료 수요 증가

PCM 강판의 용도 다변화 ... 가전용 도료시장 진출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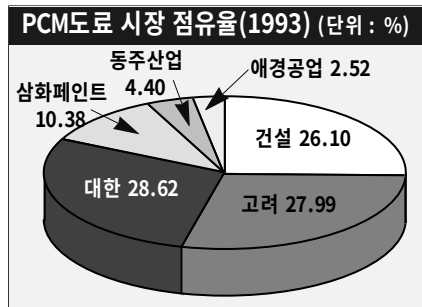
93년 한해동안 하이폴리머 PCM (Pre Coated Metal)도료의 성장이 가속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3년 한해동안 PCM강판 생산기업의 금액규모는 318억, 92년 대비 12.9%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4년에는 5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CM강판의 90% 이상이 건축용 내외장재로 쓰이고 있으나, 89년 동신평강이 전자렌지용으로 PCM 강판을 공급하기 시작한 이후 가전시장의 분체도료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3년 PCM강판의 전체 매출액 중의 10% 정도가 가전용으로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PCM강판에 쓰이는 도료는 폴리에스터, 실리콘, 하이폴리머 폴리에스테르, 실리콘, 불소타입의 도료이며 국내에서 이들을 생산하는 기업은 건설화학, 고려페인트, 대한페인트, 삼화페인트, 동주산업, 애경공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폴리에스테르와 실리콘, 불소수지 타입의 도료는 주로 건축용 PCM강판에 공급되고 있으며, 하이폴리머 폴리에스테르타입의 도료는 전자렌지의 OUT판넬, 냉장고의 후판·측판·도어, 세탁기 등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도료에 비해 하이폴리머 도료의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도료로 코팅된 PCM강판은 가공성과 마감상태가 뛰어나 가전기업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용제형 스프레이도료와 분체도료를 주로 적용해 온 가전기업들이 도장인력의 확보, 고임금, 공해문제 등

에 직면, 별도의 도장라인이 필요치 않은 칼라강판의 사용수요장점을 인식하여 그 수요가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업에 따르면 95년에 이르면 현재 분체도료가 차지하고 있는 가전도료의 상당 부분이 PCM강판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CM도료의 가격은 폴리에스테르타입 도료가 가장 저가인 KG당 2300원 실리콘,하이폴리머 폴리에스테르타입 도료가 3400원~35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4년 PCM도료 시장은 전방산업인 PCM강판 제조기업들의 신라인 증설과 수출회복,용도다변화의 노력으로 20~3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PCM강판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동부제강의 계열기업인 동부화학의 PCM도료 시장 신규참여가 확정된 이상 PCM도료 시장을 낙관 할 수만은 없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